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행보 이어가

양충모 남원시장, 기획예산처 · 관계 부처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지원 요청

남원시에 따르면 양충모 남원시장은 14일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잇달아 찾아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정부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남원시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시장은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를 방문해 남원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00억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80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조성(490억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640억원)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남원 유치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기획예산처 법사예산과 안성희 서기관과의 면담에서는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



양충모 남원시장은 14일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잇달아 찾아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최진광 인적자원에 산과 과장을 만나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청년과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정미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을 만나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훈 혁신

행정담당관을 찾아 섬진강수계의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남원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행정안전부 김민정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 인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공공의료과장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남원 설립을 적극 건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추진계획 확정, 여름철 재난 대비 등 군정의 당면 현안도 집중 점검했다. 한 군수는 이번 주까지 공약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 취약시설과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취하고 보증 및 대출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와 보증서 발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지난 13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필리핀 서부 민도로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 교류 협력 확대 방안 모색

필리핀 서부 민도로주 대표단, 임실군 찾아 간담회 가져

임실군이 필리핀 서부 민도로주(Province of Occidental Mindoro) 대표단과 만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필리핀 서부 민도로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과 향후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한국 선교단의 주선으로 성사됐으며, 레오디(오디) F. 타리에라(Ledy "Odie" F. Tarrida) 필리핀 하원의원을 비롯해 서부 민도로주 내 9개 지방정부 단체장, 산호세 지방정부 행정국장 등 대표단 12명과 한국 선교단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실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농촌 인력수요를 공유하고, 근로자 선발부터 사전교육, 입국 후 체류·근무 관리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레오디 타리에라 하원의원은 "민도로 지역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며

"농촌지역인 임실군에 필요한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단은 농업 분야뿐 아니라 서부 민도로주의 간호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소개하며, 간호·간병 분야 인력 교류 가능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간호·간병 분야는 농업 계절근로와는 별도의 자격기준과 체류·취업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지역 내 수요와 관련 법령,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번 길을 찾아주신 필리핀 서부 민도로주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나는 계절근로자와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의견을 바탕으로 양 지역에 실질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차근차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지역을 상호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친환경 모범사례 주목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지난해 4월부터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선도하는 친환경 장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일회용 식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다회용기 사용 체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상호업체의 일회용품 반입과 장례도우미들의 업무 부담, 이용객들의 불편 우려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안내와 설명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환경적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회용기 도입 이전에는 빈소 한 곳에서 평균 50L 종량제봉투 15개 분량의 일회용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평균 3개 수준으로 줄어 일회용 폐기물 발생량이 8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순창군의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을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으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책 집중 추진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2026년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는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총 7개소(종합병원 1, 병원 1, 요양병원 4, 정신병원 1)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화재예방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대책의 주요 추진 내용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자체점검의 적법 이행 여부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상태, 생명줄과 같은 소방시설의 임의 차단·폐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 입원환자 유령을 고려해 관내 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병원장 및 행정실장 등 관리자에게 최근 화재 사례를 전파하고, 화재 대피 방법 강구 및 숙달 훈련 등 병원 자체의 자율안전체계 확립을 당부한다.

특히, 2026년 말까지 유예된 의료시설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 대상 병원들의 조기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 피난 대피에 중점을 둔 실전형 화재진압 작전을 전개하며, 훈련 결과에 따라 관계인 맞춤형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특화 산업 · 일하고 싶은 정착 일터 본격 시동

임실군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축인 K-치즈(식품가공) 및 반려동물 등 특화 산업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공공 주도의 선제적 고용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임실군과 임실군일자리센터(임실군로컬JOB센터)는 관내 최종 선정 기업인 이플영농조합법인의 4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 K-치즈·반려동물 등 지역 특화 산업 및 소상공인 일하고 싶은 정착 일터 조성 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